

제 4 회 신인 출 제전

젊고 푸른 주구한마당



1부

새로운 부산 춤 시대를 고대하면서

95년 봄 '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'이 첫선을 보인
지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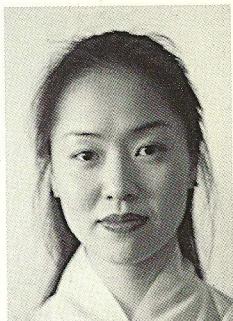
보기 좋은 고운 춤보다는 보기는 좀 거북하더라도
자기색깔이 뚜렷한 춤을 거두어 애써 북돋워
보려는 것이 이 춤판의 본래 의도였습니다.

이제는 작가정신과 실험성이 강한 새내기 춤꾼
들의 등용문으로서 제대로 재ivet을 다하고 있는
지 새삼 되돌이켜 볼 때이기도 합니다.

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들과 1,2,3기에 참가한
언니들의 새작품들이 조출하나마 한자리에 모인
이 춤판이 부산 춤계에 신선한 공급원이 되고,
대학 춤 교육현장의 풍토 개선에도 새로운 활기
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빌 따름입니다.

그동안 성원을 베풀어주신 가람문화 예술센타,
태양아트홀, 부산매일신문사와 올해 특별히 협찬
해주신 경성대학교 문화부에 깊이 고마움을 전
하면서 새로운 춤의 전환기를 고대하는 여러분
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바랍니다.

1998.3.20 민족미학연구소



벽속의 역사

안무: 한진희 · 오정윤
출연: 한진희 · 오정윤 ·
이혜정

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
못하고 죽지 못해 살고, 전
표를 모우기 위해 살고, 그
러면서 결국은 죽어간 여인
들.



자매

안무: 이현정
출연: 이현정 · 김유경

나는 너를 사랑한다.
내가 이리도 힘든데 너는
더욱 힘들겠지.
그래서 너에게 더 미안한거
야.
나의 이 애恸한 마음을 네
가 알 수 있겠니?
사랑하는 동생아,
나의 소망의 지팡이가 되어
주는 너에게
나는 끝없는 사랑과 축복의
노래를 보낸다.



조노다 누웠노다 · 종이, 紙



'97 할미

안무, 출연: 윤주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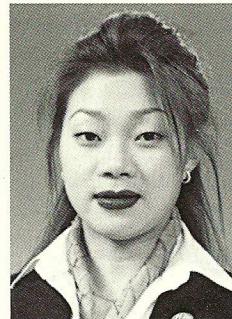
현실상황에 부딪히는 노인들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?
우울증, 망상, 자극으로 마비되어버린 치매노인들 그들이 살 곳은



Job

안무, 출연: 박상진

밤이슬을 밟고 슬금슬금 나타나는 낯선 그림자.
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예감 이....
담을 넘고 기웃거리는 모습이 밤 손님인 듯 한데



백조는 검정 튀튀를 입었다

안무, 출연: 이지영

백조와 흑조는 인간의 양면이다.



Contact

안무: 조영미

출연: 조영미 · 김태형

민다.
당긴다.
접촉한다.
그 자리에 쉼표를 찍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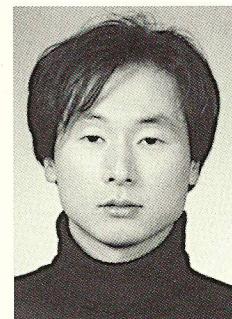
잃어버린 이름

안무: 김윤선

출연: 김윤선 · 이상희 ·

조현영 · 김미경

아름답고 환상적인 결혼식을 꿈꿔왔는데, 그 속에는 한가지의 비극이 있었다.
나의 이름 석자가 아닌 새아기, 어머니라 불리는 동안 이젠 생각조차 나지도 않는 나의 이름과 함께 나도 없어져간다.



참회록

안무, 출연: 김종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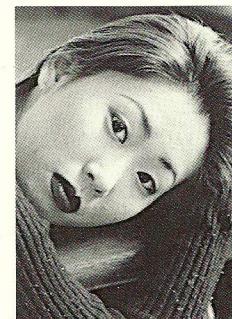


문밖의 아이들

안무, 출연: 윤선주

탈선, 범죄, 악물남용...
사회체제 속의 Outsider
멍들어만 가는 우리 아이들의 끝은 어디인가

2부



무언의 외침

안무, 출연: 안유리

내안에 있는 부르짖음이야!
한 용큼 떼어 버려야 할 외침을 그대로 담아 둔 채
나는 내 방식의 언어로
하루 하루 토해낸다.



도둑 VS 도둑

안무, 출연: 김기원 ·

김혜정

들켜선 안돼!
뺏겨서도 안돼!
어쨌든 한껏 올리는거야!



바람의 흡

안무, 출연: 이봉진

너와 내가 온 곳이 어디엔고...
돌아간다 돌아간다
한 줌의 흡으로
돌아누운 넋앞에
맴도는 바람이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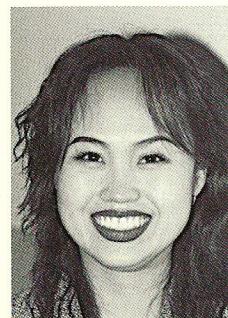


흔의 소리

안무: 김태희

출연: 김태희 · 김정미 ·
박진향 · 배선영

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중천에 뜯 해보다도 더 명확한 일이며 천명이다.
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의 죽음!
부모, 처자, 형제, 친한 친구, 동지도 따를 수 없고 홀연단신으로 그의 육신은 가루와 먼지가 되어 강에다 뿌리운다.
그외의 마지막 시간에서 나는 어떻게 홀로 살아가야 하나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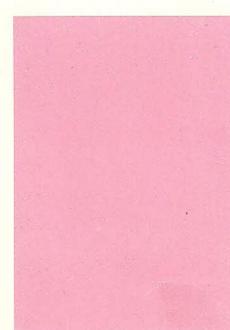


헛된 옥망

안무: 김서리

출연: 김서리 · 노진아 ·
박은미 · 신민재 ·
안혜진

영원한 생명!
내 눈에 비춰진 지옥이다.



TELEPHON

안무, 출연: 방영미

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전화기는 나의 또 다른 분신인가, 소모품인가.



찢겨진 날개

안무, 출연: 이성미

꿈과 이상의 날개가 찢긴다.
그 아픔으로 새는 몸부림
친다.



춤추는 주검

안무, 출연: 최미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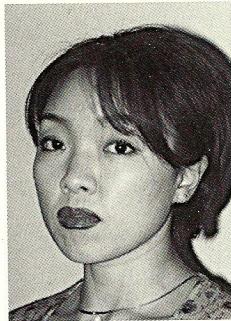
영혼의 소리, '주검'의 검은
그림자는 씨늘하기만 할까?



별에 못을 박다

안무, 출연: 이희정

난 지금까지도 그 순간들을
사랑합니다.
기억 저편에 고이 간직된
첫사랑의 설레임과 순수했던
마음을.
그 사람이 외면한 나만의
아름다운 실패를.



오늘 그곳에서

안무: 김경하

출연: 이화정, 방영미,
이현정, 김유경,
김정웅

이 세상을 사는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.
당신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들……



에너지

안무: 박미애

출연: 박미애 · 이현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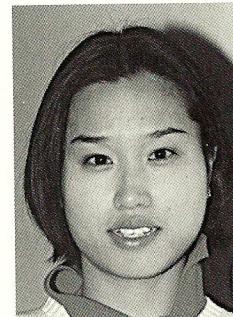
음과 양으로 각각 따로 뿐
어 나오고 음과 양으로 또
함께 솟아나는 힘의 근원을
찾는다.



광주 끝나지 않은 이야기

안무, 출연: 곽지민

"....."



그리운 등불이 되어

안무: 송윤경

출연: 송윤경 · 권혜진

조국과 부모에게 버림받은
한 소녀는 양부모에게 받은
마음의 상처와 분노로 기습
이 멍들어 가지만, 어머니와
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
진한 향수로 남아 자신을
지켜주는 등불로 피어오른다.



내 눈 속의 장희빈

안무: 황정례

출연: 황정례, 강향화

내가 옥망을 가졌던 것은
한 남자에 대한 사랑이었다.
이것은 역사가 아니다. 장희
빈도 여성이다.
한 여성으로서 무엇을 갈구
하는가
나만의 눈 속에는 나의 모습
으로 자리한 그녀의 모습
이 있다.
춤의 소리는 바로 이것이다.
나의 눈으로 나의 몸짓으로
그녀의 소리를 읽어내려고
한다.



조명감독 · 서자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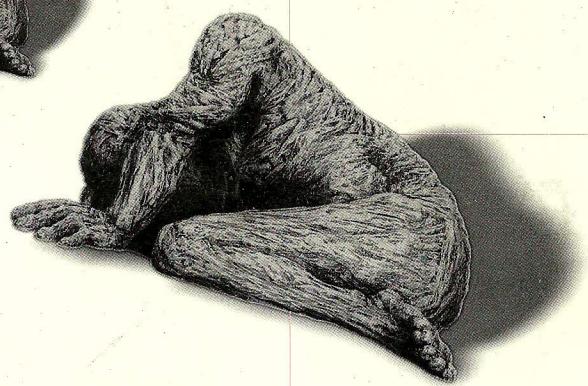


기술감독 · 김준영

진행

안태호, 정승천, 최정완,
천기호, 이 송, 이상운,
홍석기, 하지훈

여기 실린 작품은 이석금님의 작품입니다.



제4회 신인 춤 제전

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

때: 98년 3월 20일(금) 하오 7시
21일(토) 하오 4시, 7시
22일(일) 하오 3시

곳: 경성대학교 소극장

특별협찬: 경성대학교

후원: 부산일보, 국제신문, MBC문화방송, PSB부산방송

주최: 민족미학연구소

※ 본 공연은 부산시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올립니다.